

부부교환까지...막가는 성문화

〈무량수경〉에 "사람은 혼탁한 애육의 세상에 혼자 태어났다 혼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끝간데 모르거나 타락하고 있는 성문화는 이런 '혼탁한 애육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저질 포르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해괴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부간의 체인징파트너 섹스, 주부·여대생 매춘, 여고생들의 원조교제 등 '말세(末世)'라는 말이

주부·여대생 매춘 성행...여고생 원조교제도 日문화 수입 개방 음란문화 확산 '불보듯'

절로 나올 정도로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내 처음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부부체인징파트너' 및 '집단 성행위'가 검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부부교환성관계(스와핑)가 국내에도 '현

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적' 부부교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 행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에서 직수입(?)된 원조교제도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60대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이 여고생 3명과 원조교제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돼 원조교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줬다.

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성문화의 타락은 정보통신시대에 발맞추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PC통신과 인터넷, '폰팅 시스템'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PC통신·전화 업체들과 사법당국이 음란행위와 '사이버 매춘' 등을 포함한 반윤리적 반사회적 작태를 예방할 수 있는 엄격한 관리체제와 지속적인 단



◇인터넷과 PC통신 등을 통해 성윤리가 급속히 타락하고 있다. 사진은 배배팅, 미팅, 채팅은 물론 누드팅까지 회원제로 주선하고 있는 국내의 한 '인터넷 대화방'.

또한 생활정보지나 성인잡지 광고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연애 이벤트' 및 '전화방'과 '자동 폰팅 시스템', PC통신 등을 통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주부·여대생의 신종 매춘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부, 취업이 안되는 여대생에다 용돈이 궁한 여고생들까지 신종 아르바이트로 매춘에 나서면서 성윤리가 심각한 지경

불교의 눈 애육의 끝은 언제나 절망

"타락이란 도심(道心)을 잃고서 나쁜 길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다." (법화경) 근근 5계 중 세 번째인 불사음계(不邪淫戒)는 남녀의 순결과 삶의 청정성을 강조한 계율이다. 비구 2백50계의 절반 가량은 남녀관계에 관한 것이고, 비구니 3백48계는 특히 남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많다. 대·소승의 모든 계율은 음행(淫行)이 스스로의 본성을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자리(心地)까지 더럽힌다는 이유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스스로 청정을 유지하고 다른 이도 청정을 길을 걷게 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불사음계를 제정한 까닭이다. 이런 의미에서 음욕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는 나와 남을 함께 죽이는 죄악이다. "애육은 격렬한 욕망으로서 삶에 대한 집착이 근본이 되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게 되고 때로는 죽음을 위한 정도의 극단적 욕망으로 변한다." (남전장경 중지부) 욕망은 더욱 강한 자극을 찾게 되며, 그 끝은 언제나 절망으로 끝난다. "애육은 번뇌의 왕" (대반열반경)이기에 생사윤회의 원인이 됨을 깊이 새겨야 한다.

간신(奸臣)들의 나라.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제목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땅을 딛고 숨쉬고 사는 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공복(公僕)'이다.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성직자는 신자들에게,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자유직업인은 고객들에게, 그리고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맡은 바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의무의 '방향성'을 갖는다.

선이 굵다거나, 옹졸성이 있고 '마당발'이란 평을 듣는 호인(好人)들이다. 이들은 지연, 혈연, 학연을 이용하는데 능통하다. 이런 유형의 간신들일수록 인화(人和)라는 단어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한다.

대구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간신'들의 유형 또한 다양화한다. 따라서 점점 더 간신들을 식별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이 순간 간신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중국어 출판된 《간신론(辨奸論)》(우리말 번역서 제목은 '간신열전')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박성호 <변호사>

"수천년 역사에서 간(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끈 보기는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선악을 가려내고 충간(忠奸)을 관별하는 것은 국가흥망의 소재가 될 것은 물론, 백성의 안위와도 관련되며, 사업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친다."

IMF 관리 경제 체제하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손들에게까지 간신들이 득시글대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물론 아주 쉽게 '간신'의 모습이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다.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켠에 '간신'을 향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만일 그곳에 매사에 지연과 학연을 들먹이고, 종친과 일가의 이해에 집착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또 종교의 같음과 다름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종교에 배타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청빈(淸貧)을 비롯하여 호화와 사치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 호감을 받아온 인물들이 바로 그가 간신이다.

"낙태는 명백한 살생"

태아성감별 여전...여아낙태 늘어
여아 100:남아 260 출산 병원도

"액체의 태아에 해당하는 갈자람(塞刺監)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태(胎)에 하 면 중대한 살생죄를 범한 것이다. 이를 대승 불교에서는 '바라이(波羅夷)'라고 한다." (瑜伽論記)

일부 병·의원에서 여자아기 100명당 남자 아기가 120명 이상의 비율로 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과 낙태시술이 여전히 이뤄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여자아기 100명당 무려 260명 이상의 남자 아기가 태어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불법 태아 성감별행의 실태조사의 하나로 전국 22개 병·의원과 조산원 등에서 지난 3년 동안의 '남녀 신생아 성비율 출생 현황(96년~98년 8월)'을 조사한 결과, 경기 노병원 등 상당수 병원에서 여자 아기가 100명당 남자아기 120명 이상이 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장적인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5인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의료기관에서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왕따'에 청소년들 '시들'

소외감에 자살...가정·학교 관심 절실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상담실은 최근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을 주제로 개원 1주년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따돌림의 대상은 '잘나고, 있는척' 하며, 가정에서는 과보호를 받고, 집단에서는 지나치게 튀는 청소년들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나타났다.

따돌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업성적을 강조하는 경쟁적인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외식의 개혁과 가정·학교의 사랑과 관심, 상담·심리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지시됐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수사기관 감청 오히려 늘어

법무부, '감청신고의무화' 법개정 추진

민주화가 진척되면 개인 생활의 보호와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것이 자연스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전화감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97년 3천3백6건으로 96년에 비해 1.6배 증가)는 사실이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현재 수사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내세워 법원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엿듣는 '긴급감청'도 반드시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영국서 도수조절 안경 개발

근시든, 원시든 어떤 시력에도 맞출 수 있는 '꿈의 안경'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조슈아 실버(52) 교수에 의해 최근 개발됐다.

이 안경은 사용자가 두 겹의 플라스틱 렌즈 사이에 들어 있는 액체 실리콘 양을 테에 달려 있는 작은 조절 레버를 이용, 시력에 맞추도록 돼 있다.

액체 실리콘을 많이 주입해 렌즈의 두께를 늘리면 근시용, 그 반대로 하면 원시용이 된다.

전국서 농산물 도둑 판친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농가. 한해동안 딸깍려 수확한 40kg짜리 벼 70여 가마와 찰쌀 등이 도난 당했다.

농민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농산물 도둑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에서 일어난 농산물 절도사건은 지난 한 달에만 모두 56건. 마침내 경찰이 농산물 도둑들의 전횡을 선포했다. 김세욱 경찰청장은 19일 "경찰은 농산물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농산물 도둑단들은 끝까지 추적해 잡겠다"고 밝혔다.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가을호 제7호(통권 제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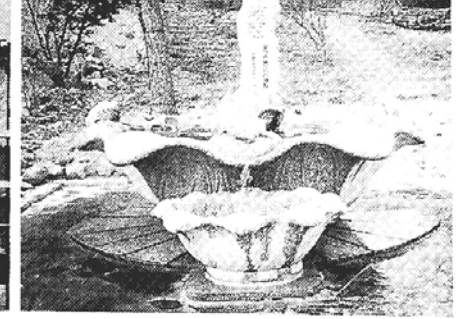
지상장면	교육학자, 김중서 박사에게 듣는다 21세기를 대응하는 불교교육
특집	IMF시대 이후 불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불교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제언 1 불교계의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 불교계의 재정운용 현황과 실태 3 타종교의 예 - 천주교 - 개신교 - 원불교 4 심보장재 관리의 모범사례 및 제언
특별기획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㉔ 행동하는 불교지성, 윌플라 라홀라 스님 - 1997년 임직한 윌플라 라홀라 스님 동서양을 두루 섭렵하며 현대를 대표하는 불교 지성인으로,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우정을 실천해오신 스님의 삶, 그리고 그가 추구한 불교지성인의 역할과 수행자로서의 수행법을 조망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불교 사상을 살펴본다
한국의 미 ㉕	한국의 담과 굴뚝
김리회보	사진으로보는 성보기행 ㉖ / 명부전의 이모저모 죽음의 문화 - 그 빛과 그늘
산寺古蹟 ㉗	마음으로 재비를 깨치신 산부처, 청담 큰스님
특별기고	다시 종교편향문제를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불교편향과 훼손사건 자료-훼손사건 일지
불교계전단 ㉘	현행 불사(佛事)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불사를 점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지상중계	강간기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 ㉙ 지혜의 길, 믿음의 길
고전산책	선논쟁 - 백과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㉚ 지난 호 추사의 편지글(盧白坡書)에 이어 이번 호에는 백과 스님의 편지글 (김정환 정희에게 답함)을 소개한다.
발굴	홍인표 거사의 염불양생법
생태탐사기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 주변의 자연생태
불교계 주요일지(1998.6-9)	불교관계는저 총합적인

불교의 문맥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편집실(02)719-2606,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719-1855, Fax 02-719-5052

석불, 칠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장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번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물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836-7527(FAX경용) 자 택 : T)0653-831-3953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 장